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8, 베드로전서, 서적 조사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8회,
베드로전서 도서조사

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첫째 서신인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책 전체를 한 구절씩 작업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베드로전서를 완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조사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사상을 추적하고 첫 번째 단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위는 실제로 여기 베드로전서의 기본 단위, 즉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 조사에서는 명백한 관찰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유배자들에게 문안 또는 문안함으로 시작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길 빕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서신적 결론이 있다는 것도 매우 분명합니다.

나는 신실한 형제 실바누스를 두고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편지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선포하고 권면하며 그 안에 굳게 서십시오. 바벨론에 있어 택하심을 입은 이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제 문제는 편지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James보다 조금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명백한 관찰을 통해 시작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일종의 송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전적으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권고나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을 붙인 구절입니다. 그러나 1:13부터 우리는 권고를 받습니다.

사실 1:13부터 5:11까지 권고가 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1장 13절이 인과적 결합으로 시작하므로 다시 한번 직설법으로부터의 이동, 즉 어떤 경우인지, 그러므로 그 근거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냄을 지적합니다. 그것의. 사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매우 광범위한 단원인 1:13부터 5:11까지를 볼 때, 나는 1:13부터 2:10까지의 권고에 주목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독자가 직면하고 있거나 심지어 직면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종류의 권고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거룩함에 대한 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1장 16절, 실제로는 1장 14절과 1장 15절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순종하는 자녀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절의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모든 행실에서 스스로 거룩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실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제가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거룩한 삶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약간 수정하여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거룩함에 대한 권고가 여기서 지배적인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룩한 삶이 여기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권고는 그것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것이 일반적인 권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삶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2:11부터 5:11까지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삶의 특정 영역이나 삶의 특정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자료에서 그는 실제로 목적 진술과 함께 일반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2:11, 12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지키라 이는 만일 저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경우에 저희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에서 우리는 사회 구조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도서 조사에서 들어갈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특정 시점에서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은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가정 코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며, 적어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실제로 시작합니다. 가정법은 2장 13절부터 3장 6절까지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가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지시 사항을 지정합니다.

실제로 그는 가정의 제도와 주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8 부터 25까지는 종, 3:1부터 5까지는 아내, 3:7에서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3장 8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박해나 박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응에 대한 권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겸손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복종에 관한 권고가 있습니다. .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베드로전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책의 흐름인 것 같다. 적어도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거시구조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제 여기에서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한 후, 책 전체에서 작동하는 주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확인한 1:1과 2의 준비 진술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얻게 하신 자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주목하세요.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책에서 준비 실현에 관한 한, 여기에는 특수화도 포함되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배경의 세부 사항 측면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배경이 있거나 제시된 배경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기능이나 지위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수신자들은 그들의 위치, 즉 그들의 상태, 폰투스,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에 있는 분산된 유배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서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독자들의 설명인데, 꽤 흥미롭고,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석을 몇 분만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되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분산된 유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독자와 그들의 기독교인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그는 책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책의 나머지 부분인 서신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개합니다. 특히 그들이 분산된 유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운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들의 포로 상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상태,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이 서신의 뒷부분에서 독자들의 유배와 낯선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단 몇 분 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종류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 이방인이나 포로 또는 포로의 언어가 발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는 분산된 포로로서의 그들의 지위, 선택된 자들의 지위를 실제로 발전시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를 뿌림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1:1 배경문에 나오는 주요 요소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며, 각각은 책의 본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책의 나머지 부분을 조명하는가?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의 각 요소의 의미는 무엇이며, 각 요소는 베드로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를 보았고, 나는 베드로전서의 주요 관심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질문인 '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작가는 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저자는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자신의 책에 포함시켰으며, 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설명을 전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갖는 함의, 신학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분석에서 1장 3절부터 12절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언과 권고, 실제로 그에 따른

권고, 거기서 나오는 권고 사이에 주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1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 1장 13절에서 5장 11절 사이에 있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보았듯이 인과관계 입증의 반복, 실제로는 권고적인 패턴, 원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는 지시사항이고 효과는 필수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에 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1장 3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1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권면을 야기하고, 산출하고, 이끌어 내는가? 1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에 걸친 신학적 주장은 어떻게 거기서 권고를 야기하거나 생산합니까? 물론 이것은 권고적인 패턴을 선택합니다. 권고에 대한 선언의 패턴에서 주요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주요 요소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요소들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서로를 밝혀 줍니까? 이 질문에 정말 철저하게 대답한다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고히 파악한 셈이다.

합리적인 질문: 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이 신학적 진술로 시작하여 그것을 1:13부터 5:11까지 전반에 걸쳐 자신의 권고의 기초로 사용했습니까? 왜 그는 1:13부터 5:11까지 그가 행한 선언 권고 패턴의 주요 요소를 포함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1:13부터 5:11까지가 책의 대부분, 즉 책 내용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일종의 세부화입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포함하여 거룩함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련이 없으며 권고 자체는 오히려 일반적이고 거룩하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가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에서 하는 일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거룩함과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거룩함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거룩함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함의 물질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삶의 특정 상황에서 거룩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그가 2:11부터 5:11까지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 구조, 박해 또는 박해자,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와 같은 특정한 것들에 관한 일반적인 부르심이나 일반적인 설명의 구체적인 적용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드립니다. 1:13부터 2:10까지에서 거룩함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이나 설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에 나오는 사회 구조, 박해, 복종 및 기타 구체적인 관심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따라 어떤 정확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까? 1:13부터 2:10까지의 거룩함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이나 설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조명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은 어떻게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조명합니까? 왜 저자는 거룩함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이나 설명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옮겼습니까?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거룩함과 사랑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을 발전시켰습니까? 그리고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고통이 반복되며 참조 구절은 그 주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부르심과 택함과 운명의 반복이 있고, 소망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배포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해석에 이르게 되면 확인되거나 수정될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그 단어 자체가 고통이라는 주제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이 책의 사상 내에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이나 찬미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용어 각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의미를 어떻게 밝혀줍니까? 이 주제들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어떻게 밝혀 주는가? 작가는 왜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왜 이러한 개념들을 그렇게 서로 연관시켰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대조의 재발, 비교의 재발이라고 말하는 사실과 관련된 반복되는 대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비교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은 선택받고,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묘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도 같은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 사이의 반복되는 비교는 특히 의로운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움직임에서 발견됩니다. 의로운 고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과 책 전체에 걸쳐 있는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 사이의 연속성의 주요 지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주요 요소 각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베드로의 기독교론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밝혀 주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 사이의 연속성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연속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르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또한 2.11부터 5.11까지 계측에 대한 특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분석에서 하위 단위만 다루고 있지만 이 하위 단위가 책에 있는 내용의 절반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관계는 책의 거시구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책 조사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특정 상황에 관련된 권면 내에서 우리는 이 자료 내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2장 11절과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다시 이 구절에서 주목하세요, 그는 1:1에서 포로 생활 언어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라 이는 만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며,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는 것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본 것을 언급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가 받은 권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11부터 5:11까지.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삼가는 것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 즉 그가 거기에서 언급하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는 것과 이방인 중에서 선행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전체와 관련된 목적에 대한 진술도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라 이는 만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가 2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에서 권고하는 삶의 목적, 즉 행동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적대적이고 사회적 맥락이다. 질문? 결정적인.

우선,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일반적인 권고는 2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특정 상황에 관한 특별한 권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확장됩니까? 일반적인 권고와 2장 11절과 12절의 목적 진술은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조명합니까? 왜 베드로는 2장 11절과 12절의 일반적인 권고와 거기에 나오는 목적 진술의 틀 내에서 2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설정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5장 12절은 책 전체의 주요 주제나 관심사를 요약하는 일반적인 진술일 수 있습니다. 5장 12절에는 내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로 너희에게 간략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알게 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책은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전서일 수도 있습니다. 권고하고 선언합니다.

그가 여기서 직설법과 명령법을 모두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덧붙여서, 사실 이것이 여기서 일반적인 진술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책 내에서 중요성 측면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 주제, 즉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직설법, 은혜, 그리고 명령법을 일반화하고 요약하며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5장 12절은 이 책의 주요 문제를 어떻게 요약하고 이러한 문제를 조명합니까? 작가가 이렇게 일반적인 요약으로 자신의 책을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우리가 관찰한 주요 구조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책을 다루는 측면에서 가장 전략적인 구절이 실제로 나타나는 다음에서 제시됩니다. , 책 자체의 역학. 따라서 1:1과 2는 물론 준비문과 일반적인 설명을 나타냅니다.

1:13은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대한 암시적 진술에서 권고로의 전환점이며, 이 책의 권고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데 이 책에서 희망의 의미는 첫 번째 권고가 희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암시되며, 우연히도 13절에 나오는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 희망을 정하십시오. 하나의 주요 동사이므로 다른 명령문 또는 RSV가 적어도 명령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분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의 주요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에 너희 소망을 온전히 두라 그런데, 우리가 책 끝부분에 있는 요약된 진술에서 우리가 발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다가올 은혜에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물론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특정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권고, 즉 1장 13절부터 2장 11절까지에서 저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제공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절의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물론 2장 11절과 12절은 악기의 특수화를 나타내며, 우리는 그가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실제로 거기에 설명하는 것을 불과 몇 분 전에 보았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더 일반적인 용어로 시작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보다 더 구체적이지만 2:13부터 5:11까지의 것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전쟁의 정욕을 삼가고 선한 행실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물론 2장 13절과 그 이후의 특정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권고보다 우선하는 목적 진술을 통해 만일 그들이 너희를 악행했다고 비난하면 이 이방인들도 너희를 악행했다고 비난하면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물론 4:19은 고통의 재발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공의를 행하고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통을 다루는 주요 측면을 실제로 포착하고 따라서 이 책에서 고통의 재발을 나타내는 전략적 영역으로서 가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장 12절이 일반적인 진술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이 책의 일반화를 나타냅니다. 아시다시피 전략적 영역을 식별하는 목적 중 하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의 해석적 관심을 해당 구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해당 구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구절이 책 전체의 주요 측면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조명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석하십시오. 단지 예상대로,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단 몇 분만에 우리가 하게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1 통역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을 취하여 책의 주요 측면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전체. 이제 책 내의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책의 2차 소스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성향은 책 자체의 데이터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감각을 불러내거나 유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 즉시 가서 역사적 배경에 관한 학문적 논문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책 자체의 데이터에서 이러한 더 높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에 관해서 그는 물론 자신을 베드로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5-1에서는 자신을 동료장로라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중 장로들에게 동료 장로로서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는 1:1에서 사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동료 장로이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중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구약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는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여러 차례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구약성서의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수령인에 관해서는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산의 망명자로 식별됩니다. 물론 구약성서의 구절과 개념을 반복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구절과 개념에 대한 이러한 반복적인 언급 자체가 유대인 청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갈라디아서보다 더 의존적이거나 더 많은 암시를 갖고 구약을 언급하는 면에서 더 많은 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방인, 적어도 거의 전적으로 이방인인 청중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전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무지했을 때 가졌던 정욕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무지 속에서 살았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봉건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작가가 제가 말했듯이 유대교의 아버지들을 족장들과 유대교의 아버지들,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봉건적이라고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2에서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에서 신학적인 방식으로 이방인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계속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되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 즉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신학적으로 유대인이고 영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또한 2장 25절에서도 너희가 한때 양처럼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방탕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지나간 시간을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살던 방식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율법이 없어서 생긴 우상

승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들과 같은 난폭한 방탕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우리가 방금 언급한 대로(4:4), 여러분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1:14부터 4:2에는 음욕을 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확실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작가가 수신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하지만 그들이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방인 이웃과 이전 동료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변호할 것을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기를 변호할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방탕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겪고 있는 불 같은 시련을 언급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고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환대를 실천한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신조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서신의 거울읽기라고 합니다. 단지 그분이 그들에게 마지못해 환대를 실천하라고 촉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내가 신자이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의 분열된 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관련하여, 다시 겸손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이 강요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곳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복종하라는 권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의 수신자, 청중에는 노예와 부자가 모두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수신자 중에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8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이들 노예 중 일부는 위압적인 주인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지며, 그는 상품이나 화폐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그곳의 청중들 사이에 부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땅을 긁는 일 등을 언급합니다. 다시 한 번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확실히 2세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설교, 아마도 한 명 이상의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계시가 저희에게 나타났으니 곧 선지자들에게 가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뿐이요 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1장 25절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글의 위치에 있어서 바벨론이 5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에 있어 마찬가지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빌론이 로마의 시글룸이었던 경우가 꽤 많았다는 것을 우연히 알고 있으며 물론 우리 모두는 특정한 종류의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마도 이것이 로마에서 쓰여졌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이 로마를 의미한다면.

그는 또한 황제와 총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여기서 제국주의적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책의 특정 출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참으로 일반서신이다. 그것은 실제로 이 큰 부분, 소아시아의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졌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많은 부분을 포함합니다. 글을 쓴 계기는 확실히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책에서 고통받는 언어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박해로 인해 다시 죄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이런 종류의 반응에 대비해 일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련의 사실로 인해 놀라고 동요되었을 수도 있는 그는 여기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에게 임하는 불 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는 겸손과 복종이 확실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의 장르 중 일부는 양 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또 다른 주요 인상은 이 책의 특징이 희망적인 어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진술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건 히나와 하포스여야 해. 이는 비록 직접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측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단과 동일한 목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구조적 관계로서 계측의 재발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그가 이것 또는 저것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체적인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이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음 비디오 세그먼트의 시작 사이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1:1과 2를 읽어보세요. 잠시 후에 해당 구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8회, 베드로전서 도서조사입니다.